

광주시, 미세먼지 없는 청정도시 만든다

공공기관 2부제·자동차 공회전 내년부터 전지역 확대 각계각층 15명 구성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출범

광주시가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한다.

15일 광주시는 “지난 13일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가 출범, 이용섭 시장 주재로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특별대책위원회 위원회는 지난 5월 15일 제정된 ‘광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의회·시교육청·광주기상청·영산강유역환경청·대기환경분야 대학교수·환경단체·학부모 대표 등 각계각층 15명으로 꾸려졌다.

위원장은 이 시장이 맡아 관련 현안을 직접 챙긴다. 부위원장은 박기홍 광주과학기술원(GIST) 교수가 위촉됐다. 위원회는 앞으로 2년간 광주 지역 미세먼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미

세먼지 개선사업 전반을 심의한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기간 공공2부제 시행 ▲자동차 공회전 광주 전지역 확대 조례개정 ▲2019-2020년 미세먼지 저감사업 추진현황·계획 등을 공유했다. 또 미세먼지 발생 원인 파악, 육외노동자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학교 공기정정기 관리·보수, 지역 특화 미세먼지 대책 수립 등 건의안건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의에서는 광주 지역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추이와 발생 원인 등에 대한 분석 결과도 공개됐다. 이달 기준 광주의 미세먼지(PM10·1000분의 10㎞보다 작은 먼지) 연 평균 농도는 42㎍/㎥로 지난해 연평균 농도 41㎍/㎥보다 약간 높다.

반면, 초미세먼지(PM2.5)는 23㎍/㎥으로 전년(24㎍/㎥)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지역의 초미세먼지 617t 중 40.3%는 날림 먼지에서 비롯된 것이며, 자동차 배출가스도 22.3%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용섭 시장은 “이번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출범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정확한 현황·계획 등을 공유했다. 또 미세먼지 발생 원인 파악, 육외노동자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학교 공기정정기 관리·보수, 지역 특화 미세먼지 대책 수립 등 건의안건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다. 이달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관내 323개 공공기관 차량2부제를 실시하고 있다. 공회전 제한지역을 시 전역으로 확대하는 관련 조례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2020년에는 18개 사업 185억 원을 투입한다.

내년 5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할 경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5만8085대(12월 기준)의 운행제한 조치도 내년 5월부터 시작된다. 위반 시에는 하루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조기 폐차 지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 LPG화물차 신차구입, 어린이 통학차량 천연가스 자동차 전환지원 사업 등 노후차량 개선 사업도 펼치고 있다.

공기 정화 효과가 큰 나무 3000만 그루 심기 사업은 지난해부터 시작돼 오는 2027년까지 사업비 총 3900억 원이 투입된다.

이 밖에도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녹지 한평 늘리기 ▲녹지공간 생활환경 숲 조성 ▲광주100년 숲길 조성 등 10개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수도권 흡소핑 관광객 1만명 유치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18개 상품 개발 28억 수익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전남지역 우수 관광상품 개발 등으로 수도권 관광객 1만명 유치를 달성했다.

센터는 16일 오후 여수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김영록 전남지사, 김민환 광주전남중소기업청장, 권오봉 여수시장, 정창선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등 각계 인사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열 예정이다.

전남혁신센터는 이번 행사에서 전라남도, 전국 관광산업 관계자와 함께 수도권 흡소핑 관광객 1만명 달성 성과를 공유하는 등 전국적으로 전남 ‘블루 투어’를 확산하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전남혁신센터는 지난 2016년부터 전남 12개 지자체, GS흡소핑과 함께 전국적으로 경쟁력 있는 18개 우수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GS흡소핑을 통해 방송 판매해 수도권 관광객 1만명을 유치했다.

28억원에 이르는 직접 상품 판매 수익은 물론 경제 활성화와 블루 이코노미 전남 관광 홍보 등 간접 효과도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나라 첫 봄을 알리는 광양 매화축제를 시작으로 해남 땅끝마을, 해양관광휴양도시 여수, 국기정원의 도시 순천, 화순적벽과 국화축제, 천사의 섬 신안, 소록도와 나로도 고교, 대소 맑은 생태도시 담양, 완도 슬로시티, 숲속의 전남 강진, 가고 싶은 섬 장흥을 관광상품으로 판매해 큰 인기를 끌었다. 또 전남 스포츠레저 관광의 우수성을 알리는 ‘나주 골드레이프’ 등 전남혁신센터는 전남을 더 다채롭고 매력적으로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전남 여행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다.

전남혁신센터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중장기 목표로 창업 500건, 보육 500건, 판로 300건, 투자 700억, 일자리 창출 1000명, 취업과 창업 교육 수요생 5000명 배출을 추진 중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오월 어머니집 송년회 이용섭 광주시장이 14일 오후 남구 오월어머니집에서 열린 ‘오월 어머니집 송년회’에 참석해 어머니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블루 이코노미’ 관련 사업 국비 대거 확보

드론 활용 스마트 영농실증 등 46건 1290억 신규·계속사업 반영

전남도가 민선 7기 새천년 비전으로 내건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를 2020년 안착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관련 신규 사업에 국비를 대거 반영하면서 초기 동력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15일 “2020년 정부예산에 전남 성장을 견인할 경제산업 분야, 46건에 1290억원의 신규 및 계속사업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는 경제산업 분야 예산 역대 최대 규

모다. 총 사업비로는 1조1928억원에 달한다. 대표적인 미래 먹거리산업인 e-모빌리티와 드론 분야에서 신규 사업으로 ‘소형 수소연료전지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 110억원, ‘융합기기를 위한 시스템 고안전성 평가 기반구축 사업’ 195억원, ‘5G 기반 드론 활용 스마트 영농실증 확산사업’ 200억원 등이 반영됐다.

계속사업으로는 ‘무인기(드론)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53억원, ‘전기자동차

차 개방형 공용플랫폼 구축사업’ 53억원 등이 포함되면서 미래형 이동·운송 관련 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전후방 관련 산업을 육성할 수 있게 됐다.

또 국내 유일의 화순백신산업특구를 중심으로 연구개발에서 제조까지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국가 백신 제품화 기술지원센터 구축사업’ 20억원, ‘백신 글로벌 산업화 기반 구축사업’ 142억원 등도 반영돼 차세대 백신, 천연물 신약개발을 선도할 거점 마련에 속도를 내게 됐다.

전남도가 미래 글로벌 에너지산업 수도로 거듭나기 위한 신규 사업으로 ‘에너지산업 규제자유특구혁신산업 육성사업’ 55억원, ‘초대형 풍력 인증·실증 단지 구축사업’ 53억 원 등이, ‘지능형 저압직류 핵심기술개발사업’ 60억원 등은 계속사업으로 반영됐다.

전남도 주력산업인 조선 분야는 ‘전기 추진 차도선 및 이동식 전원공급 시스템 개발사업’ 478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해양양철 서부정비장 구축’ 82억원, ‘알루미늄 소형선박 건조지원 시스템 구축사업’ 16억원 등이 계속사업으로 반영돼 업종 다각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계기가 마련됐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 수산연구기술보급 4년 연속 최우수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이 전국 수산기술보급기관을 대상으로 한 ‘2019년도 연구기술보급 사업 발표회’에서 최우수상을 획득, 4년 연속 수상 쾌거를 이뤘다.

연구기술보급 사업 발표회는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지자체 및 수산 현장 간 연구 성과 공유와 그 결과의 현장 보급 활성화를 위해 매년 열린다.

올해는 5개 지자체가 참가했으며,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의 ‘토종 잇바디돌김의 신상품 개발 및 양식어가 보급사업’ 과제가 사업 추진 성과와 수산 현장 파급효과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2008년부터 김 자생지 분포조사를 시작으로 ▲2010년 세계 최초 김 신상품 명명식 ▲2015년 해풍1호(일반김) 품종등록 ▲2017년 해모돌1호(모부니김) ▲2019년 해풍2호(일반김)를 개발했다. 현재 양식어업인

분양과 검증에 대한 시험양식을 추진하고 있다. 또 잇바디돌김의 품종 개발도 진행 중이다.

해풍1호가 본격 보급된 2011년을 기준으로 보급 전·후 각각 8개년을 비교한 결과 전남 김 생산량은 2.24배, 생산금액은 2.22배 높아졌다. 올해까지 분양된 2만 5717g의 종자는 마른김 2억4554만 6000속을 생산할 수 있는 양이다. 생산액은 6529억원으로 추산된다. 종자 1g으로 약 2500만원 소득을 올리는 셈이다. 이는 순금 111톤 가치에 해당한다.

오광남 원장은 “어촌 현장과의 벽을 허물고 소통과 협력의 연구 방향을 통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어업인 속으로 파고들어 현장에서 바라고, 필요로 하는 연구·시험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 사회적경제기업 1300개 넘어 육성 사업 성과

전남도의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사업의 성과가 나타나면서 사회적경제기업 수가 1300개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일 현재 전남의 사회적경제기업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97개(17%) 늘어난 1333개로 집계됐다. 협동조합이 792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마을기업 245개, 사회적기업 214개, 자활기업 82개 순이다.

매출과 고용 사정도 나아졌다. 2018년 말 기준 사회적경제기업 총 매출액은 1890억원으로 전년보다 122억원(7%) 증가했다.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의 상근직 고용도 1716명으로 전년보다 252명(17%)이 늘었다. 양적·외관 팽창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경영면에서도 내실화를 다졌다는 평가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생명의 땅 으뜸전남

전남의 새로운 바람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 6대 프로젝트로 미래로 준비하는 생명의 땅 으뜸전남과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 6대 프로젝트

- ⚡ **Blue 에너지** 글로벌 에너지 신산업 수도, 전남
- 🚢 **Blue 투어** 남해안의 기적, 신성장 관광벨트
- 🏥 **Blue 바이오** 바이오-메디컬 허브, 전남
- 🚗 **Blue 트랜스포트** 미래형 운송기기 산업 중심, 전남
- 🌱 **Blue 농수산** 미래 생명산업의 메카, 전남
- 🏙️ **Blue 시티** 전남형 스마트 블루시티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란?

전남의 바다, 섬, 하늘, 바람 등 청정 자연과 수천년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새천년을 이끌 지속가능한 혁신성장 전략입니다.

전라남도

Jeolla Namdo